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19th Edition

INSIGHT REPORT

사용 약관 및 면책 조항

본 문서는 프로젝트, 인사이트 부문 또는 상호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본 문서에 기재된 조사 결과, 해석 및 결론은 세계 경제 포럼이 돕고 지원한 협력 과정의 결과이지만 반드시 세계 경제 포럼 또는 그 회원, 파트너, 기타 이해관계자 전체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 포럼

91-93 route de la Capite
CH-1223 Cologny/Geneva
스위스

전화: +41 (0)22 869 1212

팩스: +41 (0)22 786 2744

이메일: contact@weforum.org www.weforum.org

Copyright © 2024
세계 경제 포럼 소유

모든 판권을 보유합니다. 본 출판물의 어느 부분도 세계 경제 포럼의 사전 허락 없이 전자적, 기계적 수단, 복사, 또는 기타 기타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든 복제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ISBN: 978-2-940631-64-3

보고서 및 인터랙티브 데이터 플랫폼은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risks-report-2024/>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약 1,500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사이트를 담은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GRPS)의 결과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의사결정자들이 현재의 위기와 장기적인 우선순위 간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 기간(당해, 단기, 장기)에 걸쳐 글로벌 리스크를 분석한다. 1 장에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리스크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매긴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2 년에 걸친 기간 동안 빠르게 10 위권 내에 오른 세 가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 장에서는 전략 지정학, 기후, 기술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배경으로 향후 10 년간 대두될 주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면서 네 가지 구체적인 리스크 전망을 자세히 살펴본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 세계적 분열 기간 중에 나타나는 글로벌 리스크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측면을 다루는 접근 방식을 고려하며 결론을 맺는다. 다음은 본 보고서의 주요 조사 결과이다.

글로벌 전망에 대한 우려 증가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러 사건도 많았지만, 일부 사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관심에서 멀어졌다. 수단부터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함없는 이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고, 기록적인 고온, 가뭄, 산불, 홍수도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졌고 양극화, 폭력 시위, 폭동, 파업 소식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나 코로나 19 팬데믹이 강타했던 때처럼 전 세계적인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태가 전개될 시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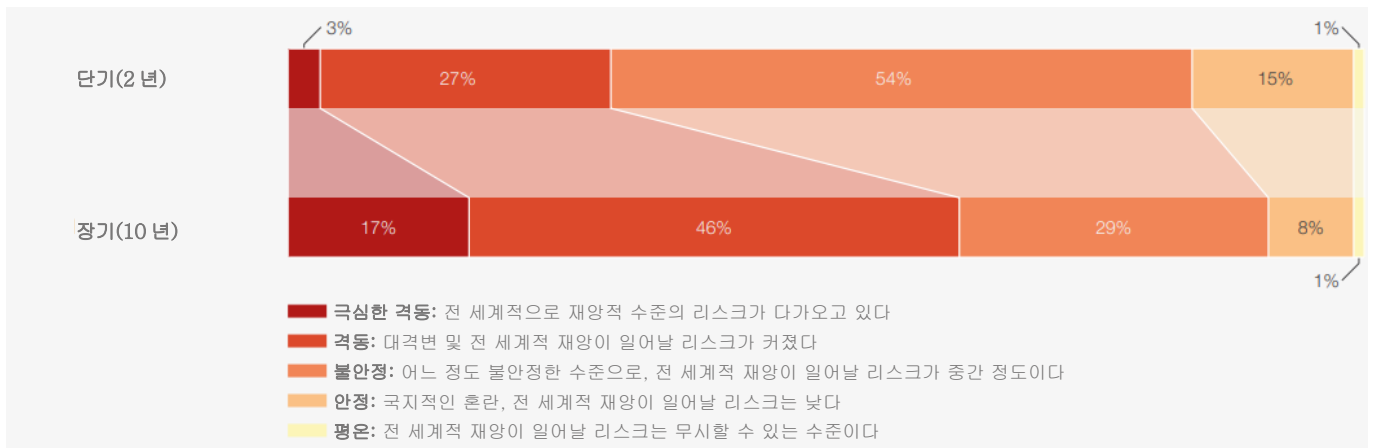
2024년에 접어들면서, 2023년~2024년의 GRPS 결과는 향후 2년 기간에 대해 전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고 10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도표 A). 2023년 9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54%)가 악간의 불안정성과 보통 수준의 전 세계적 재앙 리스크를 예상한 반면 30%는 더 심한 격변 상황을 예상했다. 향후 10년에 대한 장기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응답자 중 거의 2/3가 극심한 격동 혹은 격동 수준의 전망을 예상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는 다음 10년간 글로벌 리스크를 구체화하고 관리 형태를 이루어갈 네 가지 구조적 힘을 통해 우리의 분석을 여러 상황적 맥락과 연결 지어 살펴본다. 이러한 힘은 글로벌 환경의 네 가지 체계적 요소 간의 조정과 관계 내에서 장기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지구 온난화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전개 상황(기후 변화).
- 전 세계 인구 규모, 성장, 구조 변화(인구통계학적 분기).

도표 A 장단기 세계 전망

“여러분이 바라보는 장단기 세계 전망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출처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
2023년~2024년.

참고
수치가 반올림 처리되어 그래프상 백분율 총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 첨단 기술의 발전 경로(기술 발전의 가속화).
- 지정학적 힘의 집중 및 원천 관련 중대 변화(전략·지정학적 변화).

이러한 각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련의 새로운 상황이 구체화되는 중이고 이같은 변화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여러 사회가 이같은 변화의 힘에 적응하고자 하면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환경 리스크,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어

환경 리스크는 세 기간 모두에 걸쳐 계속해서 리스크의 지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엘니뇨 남방 진동(ENSO) 주기의 온난화 단계가 올해 5월까지 심화되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RPS 응답자의 2/3 가 **극심한 기상 이변을 2024 년에 전 세계적 수준에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상위 리스크로 꼽았다(도표 B)**. 극심한 기상 이변은 향후 2 년간 두 번째로 심각한 리스크로 꼽혔으며 지난해 순위와 유사하게 거의 모든 환경 위험 요인이 장기간 상위 10 대 리스크 안에 들었다(도표 C).

하지만 환경 리스크의 긴급성에 대한 GRPS 응답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는데, 특히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 및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에 있어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젊은층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위험 요인이 단기간 세계를 위협할 10 대 상위 리스크에 꼽힐 정도로 응답자가 젊을수록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단기 위험 요인으로 환경 리스크에 훨씬 더 높은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부문은 환경 위험을 장기간 리스크로 꼽았지만, 정부와 시민 사회는 단기간 리스크로 본다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주요 의사결정자 간에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정과 의사결정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중요한 개입 시점을 놓칠 위험이 높아져 결국 지구 전체에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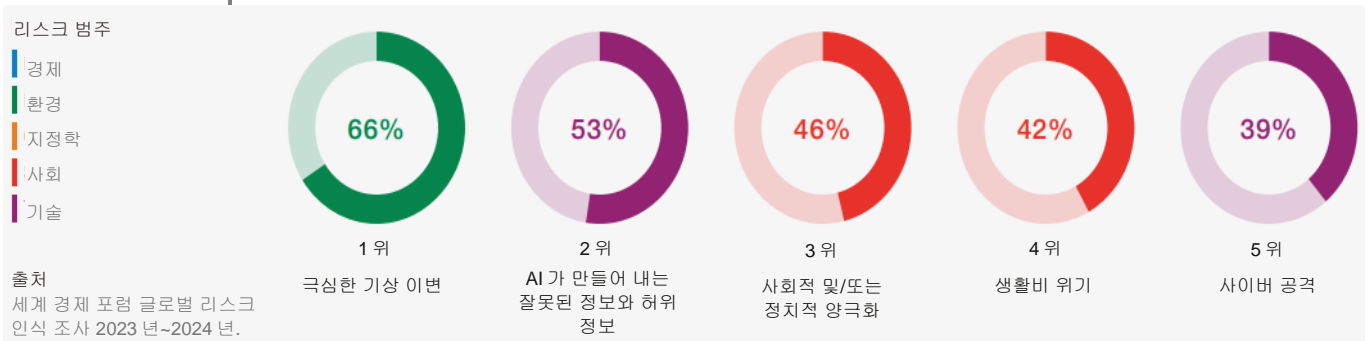
2.3 장: 3°C 세상은 향후 10 년간 적어도 하나의 '기후 임계값(climate tipping point)'을 넘게 되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또는 그 이하)** 상승하면 생태계에 장기적이며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속적 변화를 유발하는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는데, 현재 과학자들은 이 임계값에 다다를 시기를 2030 년대 초로 예측하고 있다. 관련된 몇몇 사회 환경적 리스크의 결합이 촉발될 가능성은 탄소 배출을 통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연관된 영향을 증폭시켜 기후에 취약한 인구 집단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선형적'인 영향에 많은 국가들이 거의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영향과 인프라 투자 요건을 고려하면 사회의 집단적 적응 능력에 부하가 걸릴 것이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장단기적 여파를 모두 흡수할 능력이 없는 공동체와 국가들도 있을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술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진실'이 위협받게 될 것

사회적 양극화는 당해 및 2년 기간 모두에서 3 위 안에 들었고 장기간에서는 9 위에 올랐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 침체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글로벌 리스크 네트워크(도표 D)에서 다양한 리스크의 동인이자 여러 가지 잠재적인 결과로서 큰 영향력을 갖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표 B 현재 리스크 상황

"2024 년에 전 세계적 규모로 중대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믿는 리스크를 최대 다섯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2년 및 10년 기간에 걸쳐 다음 리스크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수준(심각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리스크 범주

- 경제
- 환경
- 지정학
- 사회
- 기술

2년(단기)

1위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2위	극심한 기상 이변
3위	사회적 양극화
4위	사이버 보안의 불안정성
5위	국가 간 무력 충돌
6위	경제적 기회 부족
7위	인플레이션
8위	비자발적 이주
9위	경제 침체
10위	공해

10년(장기)

1위	극심한 기상 이변
2위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3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4위	천연 자원 부족
5위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6위	AI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7위	비자발적 이주
8위	사이버 보안의 불안정성
9위	사회적 양극화
10위	공해

출처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
2023년~2024년.

향후 2년간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해외 및 국내의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사회적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1.3 장: 허위 정보). 향후 2년간 방글라데시와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영국,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거의 30억 명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그리고 이를 퍼뜨릴 도구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새로 선출된 정부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안은 정도에 따라 과격한 시위와 증오 범죄에서 시민들의 대립과 테러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선거 후에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더욱 양극화되어 공중 보건에서 사회 정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대한 대중의 당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실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 안에서 정치적 선전과 검열이 등장할 위험 역시 커지게 된다.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면서 정부는 '진실'이라고 결정한 것에 기반하여 정보를 통제할 권한을 점점 더 확대하게 될 수 있다. 인터넷, 여론, 더 광범위한 정보 출처 접근에 관련된 자유가 이미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정보의 흐름을 억압하는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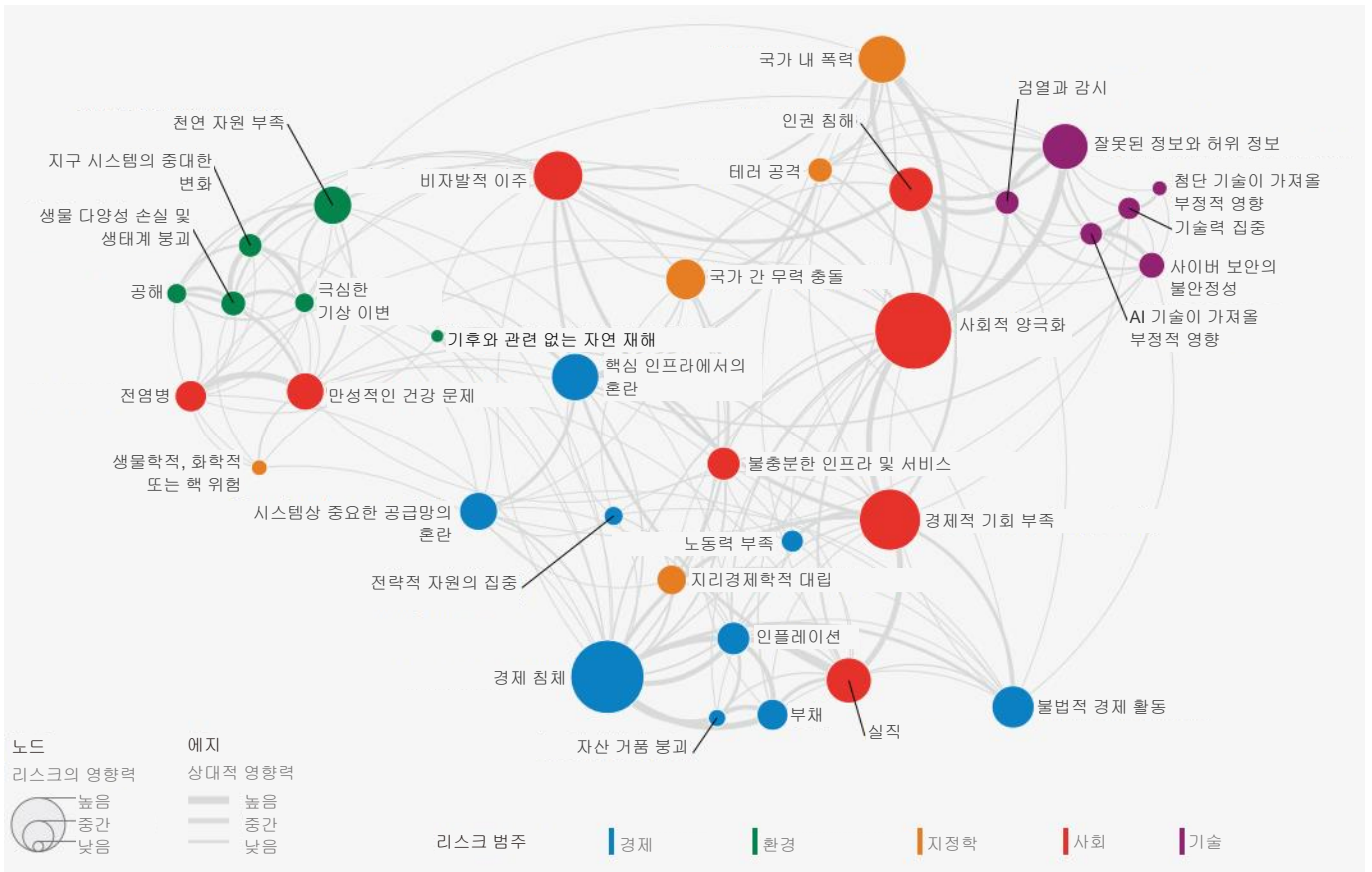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과 국가들이 겪는 경제적 압박 심화될 예정

생활비 위기는 2024년에도 주요 우려 대상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도표 B). **인플레이션**(7위) 및 **경제 침체**(9위)라는 경제적 리스크가 2년 기간에서 상위 10위에 새로 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도표 C). 당분간 "더 부드러운 연착륙"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도 단기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엘니노 문제부터 진행 중인 여러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향후 2년간 공급 측면의 여러 가지 가격 압박 요인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중소기업들과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특히 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1.5 장: 경제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지만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큰 자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기후에 취약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정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 무역과 친환경 투자 및 관련된 경제적 기회로부터 점점 더 소외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의 적응 능력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은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와 지정학적 역학의 집중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2.4 장: AI가 책임자).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업적 동기와 지정학적 필요가 인공 지능(AI)과 다른 첨단 기술 발전의 주요 동인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는 관련 이익과 리스크의 분배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취약한 국가와 공동체는 점점 더 뒤처지고 경제 생산성, 금융, 기후, 교육, 의료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엄청난 발전에서 소외될 것이다.



출처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
2023년~2024년.

장기적으로 발전의 진행과 생활 수준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경제, 환경, 기술 추세가 노동 및 사회적 유동성과 관련된 기존의 어려움을 고착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소득을 얻고 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차단되고 결국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잃게 된다(2.5 장: 발전의 종말?). 경제적 기회 부족은 단기(향후 2년간) 범주에서는 전 세계를 위협할 10대 리스크로 꼽혔지만, 장기 범주에서는 11위로 순위가 떨어졌다(도표 E).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멸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노동 시장을 심각하게 양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득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개도국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수출 성장을 통해 번영을 누리는 전통적인 발전 과정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개인이 안정적인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점 또한 빈곤부터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인간 개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대 간 계층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 계약의 뚜렷한 변화가 선진국과

개도국모두에서 사회적 및 정치적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폭발 직전의 지정학적 긴장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것

취약한 국가 상태의 결과이자 원인인 국가 간 무력 충돌이 2년 기간에서 상위 리스크로 새롭게 등장하였다(도표 C). 강대국들이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곳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서 갈등 확산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떠올랐다(1.4 장: 갈등 고조). 확산 위험 또는 국가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현재는 무력 충돌 상태가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악화될 위험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

최근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면 이는 한층 더 우려스러운 리스크이다. 공동의 협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첨단 기술 규제 방식은 가장 위험한 능력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2.4 장: AI 가 책임자). 장기적으로 생성형 AI 를 포함한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비국가 및 국가 행위자들이 초인적인 지식의 폭을 활용하여 멀웨어로부터 생물학적 무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수단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 조직 범죄, 민간 무장 집단, 테러리스트 집단을 구분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악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고, 갈등, 취약화, 부패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불법적 경제 활동**(31 위)은 향후 10 년간 리스크 중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2 년 및 10 년 기간의 여러 상위 리스크에 의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도표 D). 경제적 어려움은 기술 발전, 자원 압박 및 갈등과 결합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범죄, 무장화 또는 과격화 단계로 몰거나 조직 범죄의 대상과 활동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2.6 장: 범죄 급증).

더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 갈등이 점점 더 국제화하면서 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전쟁과 감당하기 어려운 인도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국가가 대리전에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면서, AI 와의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다. 기계 지능이 자율적으로 표적을 선택하고 목표물을 결정하는 등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향후 10 년간 우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아진다.

이념적 및 지리경제적 분열로 지배 구조의 미래가 혼란스러워질 것

여러 강대국 간에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국제적 분열이 심화되면 국제적인 지배구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강대국들의 관심과 자원이 긴급한 글로벌 리스크에 쓰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향후 10 년간 전 세계 정치 협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GRPS 응답자의 2/3 가 중진국과 강대국이 다두고, 지역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다극적이고 분열된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10 년간 북반구가 계속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전 중인 여러 나라들이 국제 무대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중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군사,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자체적인 힘을 확고히 하려 할 것이다.

남반구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팬데믹 시기의 위기와 강대국 간 지리경제학적 분열의 여파, 역사적으로 이질적이었던 국가들 간의 지지와 정치적 연합 증가가 점점 더 안보

역학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핵심 분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그리고 대만에서의 긴장이 포함된다(1.4 장: 갈등 고조).

‘불량’ 국가를 고립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은 점점 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 ‘단속’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국제적 지배구조와 평화 유지 노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글로벌 문제에서 영향력의 균형이 변화한 것은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강대국들이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지지와 자원을 제공하는 분쟁의 국제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는 또한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글로벌 리스크의 궤도와 이에 대한 관리 방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도로 집중된 기술 스택에 대한 접근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더 핵심적인 연성 권력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핵심 광물에서부터 고부가 가치 지적 재산 및 자본에 이르기까지 업스트림 가치 사슬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 다른 국가들은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경제적 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새로운 힘의 역학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분열된 세상에서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해 행동할 기회

이처럼 분열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협력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공동으로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글로벌 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남아 있다.

투자와 규제를 활용한 현지화 전략으로 불가피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이러한 이익을 모두에게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우선시하고 연구 개발에 주력하는 노력을 통해 강화된 하나의 획기적인 노력이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 개개인과 기업, 국가의 집단 행동이 단독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임계량에 다르면 글로벌 리스크를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분열해 가는 세상에서도 인류 안보와 번영에 결정적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대규모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다가오는 10 년은 우리의 적응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중요한 변화의 기간이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가지각색의 미래가 이 기간에 펼쳐질 수 있으며, 현재의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더 긍정적인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도표 E | 글로벌 리스크 순위(심각도 기준)

“향후 2년 및 10년에 걸쳐 다음 리스크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수준(심각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단기(2년)

1위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2위	극심한 기상 이변
3위	사회적 양극화
4위	사이버 보안 불안정성
5위	국가 간 무력 충돌
6위	경제적 기회 부족
7위	인플레이션
8위	비자발적 이주
9위	경제 침체
10위	공해
11위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12위	기술력 집중
13위	천연 자원 부족
14위	지리경제학적 대립
15위	인권 침해
16위	부채
17위	국가 내 폭력
18위	불충분한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19위	시스템상 중요한 공급망의 혼란
20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21위	검열과 감시
22위	노동력 부족
23위	전염병
24위	전략적 자원의 집중
25위	핵심 인프라에서의 혼란
26위	자산 거품 붕괴
27위	만성적인 건강 문제
28위	불법적 경제 활동
29위	AI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30위	실업
31위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핵 위험
32위	테러 공격
33위	기후와 관련 없는 자연 재해
34위	첨단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장기(10년)

1위	극심한 기상 이변
2위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3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4위	천연 자원 부족
5위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6위	AI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7위	비자발적 이주
8위	사이버 보안의 불안정성
9위	사회적 양극화
10위	공해
11위	경제적 기회 부족
12위	기술력 집중
13위	전략적 자원의 집중
14위	검열과 감시
15위	국가 간 무력 충돌
16위	지리경제학적 대립
17위	부채
18위	인권 침해
19위	전염병
20위	만성적인 건강 문제
21위	불충분한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22위	국가 내 폭력
23위	핵심 인프라에서의 혼란
24위	첨단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25위	시스템상 중요한 공급망의 혼란
26위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핵 위험
27위	실업
28위	경제 침체
29위	노동력 부족
30위	자산 거품 붕괴
31위	불법적 경제 활동
32위	인플레이션
33위	기후와 관련 없는 자연 재해
34위	테러 공격

리스크 범주 | 경제 | 환경 | 지정학 | 사회 | 기술

출처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
2023년~2024년.

The logo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featuring the words "WORLD ECONOMIC FORUM" in a bold, sans-serif font. A thin black line curves around the letters "O" and "R" in "FORUM".

WORLD ECONOMIC FORUM

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The World Economic Forum, 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Forum engages the foremost political, business and other leaders of society to shape global, regional and industry agendas.

World Economic Forum
91-93 route de la Capite
CH-1223 Cologny/Geneva
Switzerland

Tel: +41 (0) 22 869 1212
Fax: +41 (0) 22 786 2744
contact@weforum.org
www.weforum.org